**우도 신궁: 오치치미즈**

이 수반에 든 물은 왼쪽에 있는 바위굴 벽에서 튀어나온 ‘오치치이와’라는 바위에서 끌어왔습니다. 바위굴의 물은 바위 밑을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얼지 않으며 과거에는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 예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숭배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출산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분유가 발명되기 전에는 아기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풍요로운 모유를 상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우도 신궁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위굴의 입구 옆 부적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사탕 ‘오치치아메’ 제조에도 사용하며, 비치된 국자로 직접 떠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